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한국 배드민턴 전종목 휩쓸어

독일오픈선수권 금 5개 획득

오랜 침체의 늪에 빠졌던 한국 셔틀콕이 2008독일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전종목을 석권하며 베이징올림픽에 청신호를 밝혔다.

한국은 3일 독일 뮐하임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일 결승에서 남녀단식과 남녀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강 중국이 비록 1.5군을 파견했지만 한국이 총상금 8만달러가 걸린 3등급 이상 그랑프리에서 전종목을 휩쓴 것은 처음 있는 쾌거다.

이날 첫 경기 혼합복식 결승에 나선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조는 세계랭킹 5위인 중국의 허한빈-유양 조에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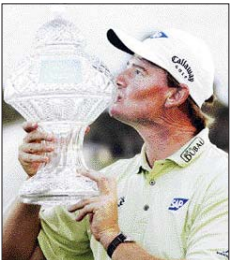
이어 여자단식 결승에 출전한 전재연(대교농화)은 중국의 왕위환을 2-0(25-23 21-10)으로 눌렀고 남자단식의 이현일(김천시청)도 일본의 사사키 쇼를 2-0(22-20 21-5)으로 일축했다.

네번째 여자복식에서는 이경원-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조가 일본의 마에다-수에츠나 조를 2-0으로 제압해 금메달 4개를 차지한 한국은 '황제대결'을 펼친 남자복식에서 이재진(밀양시청)-황지만(강남구청) 조가 정재성-이음대(이상 삼성전기) 조를 2-0으로 물리쳐 대미를 장식했다.

어니 엘스 우승

PGA 혼다클래식 6언더파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황태자' 어니 엘스(남아공·사진)가 모처럼 웃었다.



엘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PGA 내셔널 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0·7천241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74타로 정상에 올랐다.

엘스가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10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챔피언십 이후 무려 3년 5개월만이다. 미국 땅에서 열린 대회로 치면 2004년 6월 메모리얼토너먼트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5타를 잃어버린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공동 49위(6오버파 286타), 7오버파 77타를 친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공동 69위(9오버파 289타)로 추락했다.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1시간53분만에 18홀을 주파하며 71타를 찍어내 공동 72위(11오버파 291타)로 대회를 마쳤다.



'미셀 위 챔피언 만들기' 출간

천재 골프 소녀 미셀 위(18·한국 이름 위성미·사진)의 용기와 도전 스토리를 담은 '미셀 위 챔피언 만들기'가 출간됐다.

골프 전문 기자 제니퍼 마리오가 쓴 이 책은 골프 선수로서의 미셀 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팽방울과 정열을 소개하고 있다.

■ KIA 타이거즈 오늘 일본 전훈 마치고 귀국



KIA 타이거즈의 2차 전지훈련지였던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에서 선수들이 수비 훈련이 끝난 후 김동재 코치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즌이여 어서 오라”

“V10을 향한 힘찬 스타트만 남았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55일간의 전지훈련 일정을 모두 끝내고 4일 오후 귀국, 본격적인 2008시즌 돌입 태세를 갖춘다. KIA는 오는 8일 한화와의 첫 시범경기(대전)에서 변화된 팀 컬러를 선보이게 된다.

KIA는 지난 1월 9일부터 팜과 일본 미야자키, 가고시마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경쟁'을 핵심 키워드로 'V10'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새로 사령탑을 맡은 조범현 감독은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하며 패배의식에 젖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주춤해 경쟁을 통한 팀 분위기 쇄신과 실력 향상을 도모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중용하겠다는 조범현 감독의 일선에 선수들은 각 포지션 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4번 타자를 노리고 있는 우완 거포 김주형과 나지완의 대결.

조범현 감독은 85년생 동갑내기 두 선수를 짝을 지어 같이 훈련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 청백전에서도 나란히 4번 타자로 기용하면서 경쟁을 부추겼다. 첫 대결에서 훈련을 주고 받았던 김주형과 나지완은 지난달 24일 야구르트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각각 5타수 3안타(2루타 3개), 4타수 3안타(2루타 1개)의 불방망이를 선보여, 우수타자상과 허슬플레이상을 받았다. 나지완은 훈련 3개를 포함해 33타수 13안타로 0.394의 타율을 기록

실력 우선 주전 경쟁 성과 조감독 체제 분위기 쇄신 V 10 향한 자신감 가득

하며 22년만의 KIA 신인왕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강동우, 최경환 등 노련한 외야 자원을 영입하면서 이종범, 심재학, 이용규, 김원섭이 버티고 있는 외야의 주전 경쟁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경쟁이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고참급 선수들의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하락세를 보였던 노장 이종범은 27타수 11안타를 기록하며 4할이 넘는 타격으로 주전 자리 선점에 나섰다. 지난 1일 야구르트 2군과의 경기에서는 훈련과 2루타를 터트리면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감'(感) 잡은 이용규도 올림픽 예선 대표팀에 참가하면서 주전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내야는 발데스와 김중국이 환상의 키스톤을 구성했다.

안재만, 유용목과 함께 '아기호랑이' 김선빈, 최용규 등의 백업 요원도 자리를 지키며 내야가 한층 출중해졌다.

갑작스런 햄스트링 부상으로 주저앉은 서재응은 개막전 선발을 장담할 수 없지만 손조롭게 재활훈련을 진행하면서 하프 피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서재응의 공백은 호세 리마와 윤석민의 어깨에 달렸다. 다행히 투구폼을 바꾼 좌완 전병두가 위력적인 피칭으로 선발진 합류에 청신호를 켰다.

양현종과 박정태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좌완투수들 운용에 폭을 넓혀줄 전망이다.

돌아온 유동훈의 활약도 이번 전지훈련의 큰 소득. 군 문제로 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언더핸드 투수 유동훈은 뛰어난 제구력을 선보이며 본색을 찾아가고 있다.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들도 정상 컨디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서재응, 장성호, 김상훈, 이현근이 부상으로 신음하면서 훈련에 차질을 빚었지만 서재응은 미야자키에서 회복훈련을 했다. 두통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귀국했던 최희섭은 2군에서 몸을 만들어 왔다.

지난 겨울 '야구명가' 재건을 위해 절치부심해온 조범현호의 변신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제국 합격투 2이닝 무실점 美 프로야구 시범경기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투수 류제국(25·탬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이 시범경기 첫 시험 무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류제국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던 매케니필드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시범경기에서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슈아내며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로써 류제국은 올해 첫 시범경기 출격에서 인상적인 피칭으로 첫 단추를 잘 꿰어 제5선발 경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커트 버킨으로부터 마운드를 넘겨 받아 4-1로 앞선 5회말 등판한 류제국은 산발 2안타를 허용했지만 6회까지 땅볼 3개와 뜬공 1개에 삼진 2개를 엮어내며 무실점으로 잠재우고 7회 교체됐다.

이날 경기는 12안타를 집중시킨 탬파베이 가 7-5로 이겼고 류제국은 홈드를 기록했다.

■ 임창용 시범경기 첫 패배

변화구 제구력 속제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마무리 투수를 노리는 임창용(32·사진)이 시범 경기 첫 패배를 교훈 삼아 변화구 제구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창용은 지난 2일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안에서 벌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에 4-4로 맞선 8회 팀의 다섯 번째 투수로 등판해 10이닝 동안 1점을 주고 패전 투수가 됐다.

안타와 볼넷을 각각 2개씩 내줬다. 삼진은 1개를 잡았다.

지난달 29일 스프링캠프 마지막 날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시범 경기 첫 등판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짚어볼 만하다.

일곱 타자가 전원 우타자였고 볼넷을 두개나 허용했다는 점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은 우타자에게 고전했다. 첫 타자 사이토 히데미쓰에게 우전 안타를 내준 임창용은 희생 번트와 삼진으로 위기를 잘 넘기는 듯 했으나 우치가와 세이치, 쓰루오가 가즈나리에게 연속 볼넷을 주고 2사 만루에 봉착했다.

이어 아이카와 료지에게 유격수 쪽 내야 안타를 맞고 결승점을 내주고 말았다. 더 이상 실점 없이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우타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연속 볼넷을 내줘 고비를 스스로 만든 점은 다음 등판에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강릉 온 오노...세계선수권 준비

7일부터 강릉 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08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안톤 오노(맨앞)를 비롯한 미국 선수들이 3일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대회는 7일부터 9일까지 30여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연합뉴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매	골프장 시세/매
관 주 3,500	총 매매 1,700
남관 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포함 2,100

성원 문의 (062)351-0095